

# 미륵사지 서탑 복원, 6층 부분 vs 전체?

<문화재청>

<지역민>

## 문화재청, 부분복원안에 대한 주민 반발에 여론 수렴 나서

익산 미륵사지 서탑 복원이 6층 전체 및 9층 원형으로 되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확산되면서 문화재청이 뒤늦게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주민 의견을 모아 복원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복원방식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문화재청은 5월 28일 익산 미륵사지 서탑 보수정비 현장에서 지역주민, 시민단체, 종교계, 문화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설명회를 갖고 현재 복원 중인 미륵사지 서탑에 대해 설명했다.

미륵사지 서탑은 1998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해체보수정비를 결정된 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맡아 2001년부터 10년에 걸쳐 해체했다.

이후 복원방식은 3년여동안의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기존의 자재를 활용한 해체 이전의 6층 모습으로 복원하기로 결정,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기초 보강공사와 부재료를 가공하는 단계로 복원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9층 규모였던 미륵사지 서탑을 전체 복원하지 않고 6층까지 중 일부만 복원하는데다 복원 후에도 일제시대 시멘트가 덧씌워진 상태로 복원한다는 계획에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장설명회에서 나선화 청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복원 중인 미륵사지 서탑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6층 전체 및 9층 원형 복원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의 결정으로 인한 미륵사지 석탑의 복원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주민 의견을 듣고 잘못된 것은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더불어 "미륵사지 석탑의 복원과 관련된 주민 의견 수렴과 기획이 10년 전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고 기술이 변화·발전하고 있는 만큼 복원의 방향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 청장은 또 "미륵사지와 왕궁리 일대의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미래가치를 공유해야 진정한 세계유산이 될 수 있

### 지역주민 원형 복원 목소리 높아 '백제 패배의식 지울 기회'

유네스코는 6층 부분 복원 수용

다"며 "동양의 정신·문화특성을 바탕으로 세계인류문명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륵사지 서탑 보수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김현용 학예사는 지역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6층 전체 복원과 9층 원형 복원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김 학예사는 "6층 부분 복원의 경우 역사성과 진실성을 보존할 수 있으며 원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할 수 있어 복원 수리 전후의 이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6층 전체 복원과 9층 원형 복원에 대해 "저층부 부재의 보존



문화재청이 진행하는 미륵사지 서탑 6층 부분 복원도

이 불합리하고 신부재 증가로 역사적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빼놓아진 비대칭형 6층 부분복원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9층 원형 복원을 주문했다. 최형식 마한백제문화유적복원 추진단장은 "익산시민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0%이상의 시민들이 6층 전체 복원 또는 9층 원형 복원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태택 익산시의원은 "15년째 미륵사지 석탑복원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설명회 자리가 거의 없었다"며 "전문가들이 일방적으로 시민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문화재위원 회일 스님은 "백제가 패망의 역사보다 미륵사지 서탑 또한 무너진 모습으로 남아있어 안타깝다"며 "복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미륵사지 서탑 6층 전체 복원도

원의 모습역시 무너진 폐허의 모습으로 된다면 미륵사지 석탑은 천년만년 패배의식을 재생산하는 상징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재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이러한 주장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부분 복원이 아닌 6층 전체 복원이나 9층 원형 복원으로 변경할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조건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 국제 기념물 유적협의회)는 5월 4일 문화재청이 제출한 6층 부분 복원을 세계문화유산 등재조건으로 수용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최종적인 세계유산 등재는 오는 6월 28일부터 열리는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위원회(21개국) 합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광주박물관 어린이문화재 전시전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6월 9일부터 8월23일까지 특별전시 '어린이문화재 그림전'을 개최한다.

이는 지난달 열린 '제28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의 수상작품을 모아 선보이는 전시회로, 대상 수상작을 비롯해 최우수상(6)·우수상(15)·佳作(36)·특선(22)·입선(64) 등 총 144점의 작품이 공개된다.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작품은 광

주 송원초등학교 6학년 조민솔 어린이의 '백제 금동관모'다.

한편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는 어린이들이 국립광주박물관 전시실에 있는 문화재를 보고 자신의 느낌을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행사다. 올해 대회는 지난달 18일 개최됐으며 광주·전남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 751명이 참가해 각자 그림씨를 뽐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완도 신흥사, 학교폭력 예방 업무협약

완도 신흥사(주지 법일)와 완도경찰서(서장 이수경)는 6월 3일 '학교폭력 가·피해자 보호 및 선도'를 위한 템플스테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위기청소년의 선도와 피해학생을 '꿈' 지원과 정상생활 복귀를 돕는 내용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흥사는 청소년 대상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인 '마음챙김 명상'과 '청산도 슬로우커피(자전거 라이딩) 포항' 프로그



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고창사회복지관 희망 나누리 발대식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대원)은 지난 5월 29일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대산면, 아산면 복지위원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5년 민관협력활성화사업 희망 나누리 발대식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희망 나누리는 아산면과 대산면 주민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단체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대원 스님은 "복지사각지대는 주변의 무관심으로 비롯된다"며 "이번 발대식 및 협약을 통해 희망 나누리와 고창군, 고창



군종합사회복지관이 합심하여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수계의식과 결합한 이체로운 성년의식

대학생들을 위한 불교식 성년의례가 개최돼 눈길을 끈다. 천통사(주지 무등) 성덕문화재단은 5월 17일 신축법당에서 증명법사 지각스님, 법일스님과 예비 사회인, 신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행으로 맺어가는 성년의례'를 개최했다.



법일스님이 참여 예비성인들에게 연비를 하고 있다.

이날 성년의례는 전통 성년의례의 양식에 불교수계의식을 결합해 진행됐다. 의식은 타종을 시작으로 헌공, 거향찬, 삼귀의, 반야심경, 청법가, 성년자 대표서신, 권정축사, 수계연비, 선계문화(증명법사), 수계법명 설명, 성년선언, 초대순님 축사, 성년자 답사, 증명법사 개도예훈, 성년자 삼배, 가족덕담, 정근, 축원, 성년선언문(수계법)수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성년식에는 남 8명, 여자 17명 등 전체 22명의 예비사회인이 참여했다.

예비 사회인들은 선서를 통해 "성년이 된다는 것은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당한 권리와 의무에 따르는 책임을 충실히 실천하는 일이다"라며 "이제 어른에게 주어진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엄숙하게 선사한다"고 합송했다.

지각 스님은 법문을 통해 "이제 한 사람의 성년이자 부처이며 사회인으로서, 사회발전과 자아실현을 위해 주체적인 아름다운 삶을 살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정광학원 제12대 이사장 원일스님 취임법회

호남유일의 불교 종합학교인 정광학원 이사장에 원일 스님(장성 백양사 주지)이 취임했다. 학교법인 정광학원(정광중학교, 정광고등학교)은 지난 5월 29일 불비나체육관에서 제12대 이사장 취임법회를 가졌다.

취임법회에는 학교 이사인 무상스님(송광사 주지), 범각스님(대흥사 주지) 등 전남지역 4대본사 주지스님들과 연광스님(광주불교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지역 사찰 스님들을 비롯해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강인규 나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학생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삼귀의에 이어 정광학원 연혁 및 이사장 수행이력 소개, 법인기 전달, 꽃다발 증정, 취임사, 격려사,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원일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창학 70여년을 앞두고 그간의 역사적 전통과 자부심을 안주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시기"라며 "정광학원이 이 지역사회



취임식에서 법인기를 받아 흔들고 있는 원일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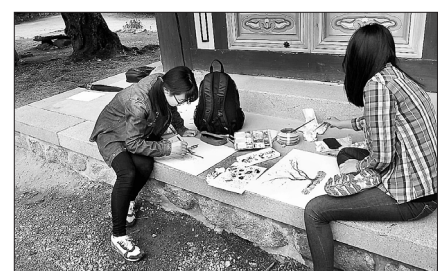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명문 사학으로 역사에 길이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원하는 자비롭고 지혜로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원일스님은 이어 "불교종합학교에 걸맞은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부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게끔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청소년들의 잔치 한마당 모악축제 개최

전북파라미터청소년협회(협회장 성우)는 5월 30일 전북 김제 금산사 일원에서 '제19회 청소년 모악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 모악축제는 전북의 중고 파라미터 학생 500여명과 지도교사 50여 명이 동참했다.



알기의 체험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파라미터청소년들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모악청소년 축제는 산문, 운문의 백일장 부분과 한국화, 서양화, 만화를 그리는 사생대회부분 그리고 가장 관심이 높았던 음악놀이 경연대회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밖에 전통 부채 만들기, 염주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수묵화 배우기, 다도체험, 목작 치기, 108배 체험, 우리 문화재 바로

조동제 전북지사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 88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상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식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5년 6월 中

◆개강일시 : 2015년 6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 개강일시 : 2015년 6월 中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대한불교  
일월 조계종**

총무원장 덕 원  
사서실장 현 경  
사부대중 일 동

■ 대한불교 일월 조계종 총무원  
전북 정읍시 산외면 (묘덕사)  
연락처 : 010-4651-1663

##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옹골게 지탱하는 힘
-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